



2022 + Bernard -
3대리구 도원성당 | 그림_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2022. 09. 18. (다해) 제2340호

제1독서 지혜 3,1-9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2독서** 로마 8,31-3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9,23-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십자가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찾는 도구이다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장 | 강진기 안드레아 신부

우리나라에서 30여 년 전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된 휴대폰은 우리 삶을 대단히 편리하게 바꾸었고, 매우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통화의 편리함은 기본이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제보하는 것,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휴대폰이 반대로 우리 삶을 방해하고 부담을 지우기도 합니다. 벨소리 때문에, 게임 때문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나 톡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편리함과 신속함, 순간의 즐거움을 얻는 대신 또 다른 방식의 속박과 통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시간을 아끼고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에,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극단적인 단절을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누리는 세속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이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는 않으며, 가장 친밀해야 할 관계마저 단절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지만, 결국 물질문명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메마름을 부르고, 일상의 편리함이 또 다른 속박과 통제, 그리고 외로움을 낳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동료 순교 성인들은 우리와 달리 세속의 것, 즉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풍요로움의 거짓된 본질을 깨닫고 하느님을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큰 자유와 더 완전한 선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자유와 평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교로써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신앙 선조들보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순교 성인들처럼 세속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는 악습과 세속의 편리함을 스스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절제하는 정도의 십자가는 기꺼이 짊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박해가 사라진 오늘날,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세속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물질과 기술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우리를 침묵의 배교자로 만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주한 일상의 크고 작은 십자가는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과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길로 가는 도구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필문**

요시아 (2열왕 22,1-23,30; 2역대 34-35)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강수원 베드로 신부



“요시아에 대한 기억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입에나 꼰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집회 49,1) 후대에 이토록 아름다운 찬사를 받는 임금에 또 있을까요. 집회서 저자는 다윗과 히즈키야와 더불어, 평생 경건함을 지켰고 온 백성을 회개시켜 하느님께로 이끈 요시아 임금(기원전 640~609년 재위)을 한껏 칭송합니다.(집회 49,1-4)

히즈키야의 종교개혁 이후, 므나세와 아몬 두 임금은 다시 바알 제단과 산당을 짓고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등 지독한 우상 숭배로 돌아섰습니다. 아몬이 재위 2년 만에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자, 백성은 여덟 살의 어린 요시아를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숫자 ‘8’은 다윗(여덟째 아들)과 예수님(그리스어 예수스 ΙΗΣΟΥΣ: 숫자로 888)을 떠올리게 하는데, 백성이 손수 세운 임금이라는 점에서도 요시아는 조상 다윗을 닮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요시아가 태어나기 약 삼백여 년 전에, 그가 더럽혀진 하느님의 성소를 정화하고 그릇된 경신례를 다시 세울 사람이라고 앞서 예고하셨습니다.(1열왕 13,1-2)

요시아는 열여섯 살에 하느님을 열렬히 찾았고, 스무 살에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종교 혼합주의를 혁파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했습니다.(2역대 34,3-7) 그가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에는(기원전 622년) 기념비적 사건이 있었는데, 대사제 힐키야를 감독으로 세워 성전을 보수하던 중 하느님의 ‘울법서’를 발견한 일이었지요.(2열왕 22,3-20) 요시아는 사관 서기관이 낭독하는 울법을 듣고서 너무나 참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애도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모두가 하느님의 뜻과 계명을 까맣게 잊고 엉뚱하게 살아왔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요시아는 모든 원로들과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울법서를 들려주었고, 마침내 온 백성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느님

과 계약을 맺고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울법서를 지침으로 삼아, 즉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이교 산당과 신상들을 허물고 지방 성소의 사제들과 예배를 폐하여 예루살렘 중앙 성소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했습니다. 요시아가 이교 잔재를 씻어내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허물다’, ‘태우다’, ‘가루로 만들다’, ‘내쫓다’, ‘죽이다’ 등(2열왕 23,4-20) 아주 과격하지만, 이는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회개와 쇄신 또한 결코 적당할 수 없음을, 언제나 기민하고 완전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609년에 요시아는 아시리아를 도우러 북진하던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므기또에서 전사합니다.(2열왕 23,28-30) 역대기 저자는 요시아가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출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2역대 35,21-22), 이는 성왕이 요절한 일을 해명(?)하려는 역사가들의 의도로 이해됩니다. 사실 요시아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베텔을 장악하고 전국적인 종교개혁까지 단행하여 통합 이스라엘의 재건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열강에 휘둘리면 또다시 종교와 정치 모든 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늘 유다를 박해해 온 아시리아가 이집트의 원조로 다시 세력을 되찾는 일도, 이집트의 대군이 이스라엘 땅을 헤집고 지나가는 일도 허락할 수 없었을 요시아의 심정을 헤아려 봄 직합니다.

요시아의 개혁과 영적 쇄신은 하느님의 뜻과 계명이 담긴 울법서(성경)를 확고한 기준으로 삼았기에 가능했음을 기억합니다. 가끔은 하느님의 뜻을 찾지도 않은 채로 저 혼자 자책하고서는 엉뚱한 길로만 자꾸 또 되돌아가곤 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요시아와 함께 우리 마음속 성전 깊이 잠들어 있던 하느님 말씀을 깨워,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일상을 이어갑시다. **▶▶▶**

마태오 18장 교회 공동체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마태오복음서는 ‘교회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교회’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며, 교회에 관한 많은 전통을 전해준다. 특별히 18장은 그리스도인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마음과 몸가짐을 밝혀놓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18장에서 ‘되찾은 양의 비유’에 나오는 양은 ‘길 잃은 양’이다.(마태 18,12-14) ‘길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벗어나 홀로 두려움과 원망에 빠져있음을 뜻한다. 이런 형제를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타일러 형제를 얻으라’고 권고하신다.(마태 8,15) “타이르다(ελεεξον)”라는 그리스어 동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켜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를 타일러면, 겸허하게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어’(마태 18,4)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며’(마태 18,10) 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을 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말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라’고 한다.(마태 18,16-17) 그러나 알림은 고발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나누며, 갈등과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마태오는 교회의 권위와 함께 회중에게도 ‘매고, 푸는’ 권위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려주며(마태 18,18), 모든 판단과 징벌에 앞서 기도가 우선해야 한다고 한다.(마태 18,19-20)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으로 서로 화해를 이루려고 시도할 때 주어지는 하느님의 자비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은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아혼아훅 마리의 양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마태 18,21)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매정한 종의 비유’(마태 18,23-35)를 들어 말씀하신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마태 18,32-33)

용서와 수용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선물이다. 그러나 무한한 용서는 무조건이 아니라 비록 고통이 수반된다 해도 철저한 교정을 수행하려는 가족적인 애정에 있다.(마태 18,35)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용서와 신뢰를 반복하며, 하느님을 향해 “우리가 서로 다름을 지니고서 하나가 되어 걸어나가는 길”(프란치스코 교황) 입을 알려준다. **필문**

말씀 맞히기 Q & A

1.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2. 마태오복음서(18,12-14)와 루카복음서(15,1-7)에서 ‘되찾은 양’의 서로 다른 상황을 적어 봅시다.
3. 예수님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9월 23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9월 25일 연중 제26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④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2년

베르몽 신부의 병세 악화

6월 26일 수요일

무세 신부가 돌아왔다.

6월 28일 금요일

샤르즈비프 신부에게 목포를 임지로 주었다.

6월 29일 토요일

명도회(明道會)의 주보 침례. 나는 샤르즈비프, 소세 신부 등과 같이 이 회원들을 위해 미사를 드렸다. 저녁 때는 경축.

6월 30일 일요일

베르몽 신부는 의사가 그에게 말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자신이 따르고 싶은 것만 믿고서 불확실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식이요법을 단념하자 병이 재발했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다. 나는 비를 청하는 기도를 지시했다.

7월 2일 화요일

샤르즈비프 신부가 가실로 떠나고, 베르몽 신부는 병원으로 갔다. 김 요셉[金紋玉] 신부가 돌아왔다.

7월 3일 수요일

샤르즈비프 신부가 돌아왔다.

7월 4일 목요일

김 요셉 신부가 떠났다. 베르몽 신부는 열이 올라 그 상태가 불안해졌다.

7월 6일 토요일

샤르즈비프 신부가 제주도를 경유, 목포로 가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 베르몽 신부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하고, 열은 40도 3분이다.

7월 9일 화요일

나는 주교관의 설계를 위해 프와넬 신부를 대구로 오도록 청했었다. 그는 오늘 도착했다. 베르몽 신부의 상태는 약간 호전되었다.

말씀묵상과 함께하는 교구 도보성지순례

2022.9.24.(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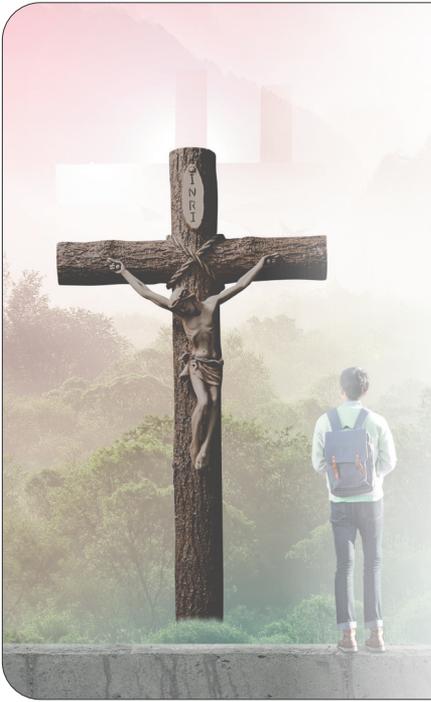
9:30 가산산성 주차장 집결 - 10:00 출발 - 14:00 미사

코 스이 가산산성 주차장(진남문) ~ 한티순교성지(대략 5Km)

준비물 | 도시락, 간식, 개인 물, 돗자리 등

문의 | 교구 사목국 053-250-3057

- * 개인으로 참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집결지(가산산성 주차장-진남문)로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팔공3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포항·경주지역 태풍피해자 돕기 2차 헌금 실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교구에서는 2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정성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충동구매, 과도한 소비, 과시적 소비하지 않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9월 19일(월) 11:0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9일(월) 11:00 죽도성당
----------------	----------------------	-----------------	----------------------

수도회 성소 | 피정

돈보스코여자재속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
장소: svdb.creatorlink.net 참조
문의: (0507)1306-1505

대구 예수마음기도 피정

일시: 10.10~11.7 매주 월 10:00~16:00
장소: 성김대건 성당(황금동)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교육수녀회, (010)9620-5603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언제나
산내 치유 피정: 9.20(화)~21(수)
시니어: 9.27(화)~28(수)
문의: (054)382-0091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일자: 9.25~28 / 10.18~20 / 10.24~26
11.5~8(추자도) / 11.12~15(추자도)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날짜: 10.20~22 / 10.24~26 / 11.1~3
11.15~17 / 11.21~23 / 12.31~1.2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강우일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 (구역반장 피정 환영)
일시: 10.18~20, 11.18~20, 12.5~7
장소: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사목센터
문의: (010)9670-9775 / (010)2231-2074

꽃동네청년기도모임 (248차)

일시: 10.1(토) 13:00 (매달 첫째 주)
장소: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상: 기도하고, 치유받고 싶은 청년
문의: (010)3689-2753, 인스타 kkot_hf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고령성가의집(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길 108
내용: 1인 1실 사용 / 공동기도 생활
대상: 65세이상 기초수급자 / 일반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392차 ME주말: 10.28(금)~30(일)

쇄신주말: 10.15(토)~16(일)
(쇄신주말은 ME를 경험한 부부대상)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한국여기회 '여기애인' 원고 모집

주제: 봉사, 자선, 이웃사랑의 체험수기
분량: A4용지 2매 이내, 11P
제출: min8641@hanmail.net
소정의 원고료 제공 / 연락처 필수

성심복지의원 무료병원 진료 안내

과목: 치과(무료틀니), 한방,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대상: 수급자 65세 이하(치과), 노인, 노숙자, 이주노동자, 한부모세대 등
문의: 256-9494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70(남산동)
청라센트럴파크 상가 3층 307호
김경암(아네스)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작장 ☎ 053-959-7175
010-9597-717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덕우(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임승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망막질환
대표원장 박중원(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전문 의 제재신(베드로)·장주현(비바인나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원장 이동구(마티아)

파크골프
국산채 20~30% 할인·골마 수입제 초보자 무료레슨
미연전 4월11일 **일월메트**총판 **소형가전**
소름떨작속기 게르마늄옥매트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종단지로 45 전차관 1층 239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황용식(타대오) 신부
2020년 9월 18일
- 서인석(바오로) 신부
2005년 9월 20일

교구 | 대리구 알림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일자: 10.5(수)~6(목)

장소: 한티피정의집(교구청 차량 이용가능)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9.22(목) / 신청비: 6만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강현자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청 관리과 신입(사무직) 직원 채용

자격: 군필자, 35세 이하

서류: 교구 홈페이지 알리란 확인

마감: 9.23(금) 15:00

제출 및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31

다사성당 사무원 채용

자격: PC 가능자, 가톨릭 신자

서류: 이력서, 교적증명서

문의: 587-730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미혼모돕기 생명사랑 나눔바자회

다양한 공연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

주관: 대구대교구 여성위원회

일시: 9.17(토)~19(월) 11:00~17:00

장소: 가톨릭여성교육관(카리타스카페 옆)

문의: 254-6115

2022년 새빛학교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국어반: 맞춤법과 문장의 이해(수,금)

문학반: 한국 문학의 이해(화,목)

영어반: 발음과 기초회화(화,목 13:30)

문의: 새빛학교(교대역), 476-3100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9.19(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509-9748

교구성체조배회 월례미사

일시: 10.1(매월 첫째 토) 10:00 미사

장소: 지산성당

내용: 성체현시, 강복

제4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일) 9:00~17:00

장소: 대구 수성국민체육센터



좌측 QR 코드로

신청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 공기업 NCS 취업캠프

교육: 9.30(금)~10.1(토) 10:00~17:00

신청: 9.19(월)~21(수)

대상: 19~34세 청년 누구나

문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850-3084

http://www.cu.ac.kr/ *온라인 강의

바오로딸 신앙아카데미 & 전시회

수도자와 걷는 프란치스코 순례길

강사: 황인수 신부(성바오로수도회)

일시: 10.15(토) 15:00~16:30

김중숙 도예 성물 전시회(10.15~30)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JPIC 아나바다 및 바자회

날짜: 10.3(월)~6(목)

장소: 남대영기념관

문의: (010)8682-4237

평화계곡 초대의 날

일시: 10.1(토) 14:00~18:00

장소: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330 평화계곡

내용: 그림전시, 콘서트, 빗떼제기도, 미사

회비: 1인 1만원 (사전예약필수)

신청: 김민지 마리아수녀, (010)6667-1058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중계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료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010-7125-8849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코리아알트만
 39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Sc 현대라이프
 합병 2주년
현대라이프 매일상조
크루즈, 웨딩, 장례 상담
 상담전화 **1566-1678**

원룸, 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24시간 요로결석
비엔 비뇨의학과
 *피부과 의원
 대표원장 전문의 **이윤형(요센)**
 삼정브리타시 건너편 올리브영 3F
 Tel. 053 552 2525

대한요양병원
 재활전문 / 암·노인성질환 / 투석요양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 297(남산동)
 (경복여고 건너) **Tel. 053.218.8800**
 병원장 **김봉일**(파우스티노)